

“고공농성 노동자들 땅 딛게 하는 일이 대선보다 시급” 금속노조, 옹티칼·한화오션 문제 해결 촉구 ... “정치권 책임지고 나서야”

금속노조가 정치권에 고공농성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위한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지상 복귀가 대통령 선거보다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땅에 발 딛고 서야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라며 “옹티칼 해고노동자,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루빨리 고공에서 내려오도록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사업장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국옹티칼하이테크지회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등 모두 3곳이다.

그중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 옹티칼하이테크지회가 가장 오래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박정혜, 서현숙 2명 조합원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미 한국옹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 올랐다. 이날 고공농성 458일째를 맞았다. 사측은 화재 이후 공장 폐쇄와 해고가 진행했다. 모기업 니토덴코는 평택 니토옹티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날 전화 연결에서 “그저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라고 토로했다.

김형수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서울 장교동 한화오션 본사 앞 30m 높이 CCTV 첩탑에서 26일째 농성 중이다.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사측 교섭 해태로 해를 넘겨 2024년 교섭을 한다. 임금 차별 해소 등

을 요구하며 148일간의 파업과 49일간의 단식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고공으로 올라야만 문제가 보이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는 서울 명동역 지하차도 시설물 위에서 56일째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2021년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니토덴코는 고용을 승계하고, 세종호텔은 정리해고를 철회하며, 한화는 교섭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주요 과제로 노동법 전면 재개정과 노동권 보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승리, 저항하는 시민의 승리입니다.

내란을 벌인 독재자는 이제 끌려 내려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독재자의 파멸을 기뻐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대선을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의 교섭도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재구속, 비리와 의혹의 심판, 국민의힘 해체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 큰 호흡과 함께 투쟁의 각오를 조입니다.

대선투쟁, 임단협투쟁, 내란세력청산투쟁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공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양재동의 협박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동지들!
해고와 임금체불,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심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 총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각오와 결의를 7월 총파업으로 이어갑시다.
지난 넉 달간 마음고생, 몸고생하신 19만 조합원 동지들!
승리의 기쁨을 몰아 더 큰 투쟁과 더 큰 승리로 달려갑시다!

2025년 4월 7일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열



 전국금속노동조합